

지옥은 중생들로 넘치는데 명부전은 텅 비고...

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 대구 비슬산 소재사(消災寺)

‘비슬산소재사’ 들계단 끝에 서있는 일주문의 현판이 산자락에 걸린 듯 보인다. 비슬산(毘瑟山), 소재사(消災寺). 현판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또 다른 세상 앞에 서있는 듯하다. 산 이름도 그렇고, 절 이름도 그렇고 모두 다른 세상이다.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산에, 재앙이 소멸되는 도량.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문 앞에서 이틈을 달리 한다. 어느 산문이든 걸어온 길을 잊고 들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들어서는 발걸음이 늘 새로웠던 것인데, 너무도 다른 세상의 산명과 사명은 오히려 걸어온 길을 낯설게 했다. 비슬산 기슭, 비슬산자연휴양림 안에 자리한 소재사다.

소재사는

일주문을 지나면 도량이 한 눈에 들어온다. 풍경(風聲) 소리 하나 없다. 깔아놓은 자갈 위로 발자국 소리만 따라온다. 대웅전 한 채, 명부전 한 채, 삼성각 한 채, 종무소 한 채가 전부다. 초록도 아니고 이제는 단풍도 아닌 단풍나무가 마른 잎을 매달고 법당 앞에 서있다. 설법이다. 그렇게 서있는 것이 웬지 그렇게 보였다.

비슬산 남서쪽 중턱에 자리잡은 소재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한 개산 연대는 알 수 없다. 사기(寺記)에 따르면 1358년(고려 공민왕 7년)에 진보 법사가 중창했고, 1457년(조선 세종 3년)에 활륜 선사가 중건했으며, 1510년(조선 중종 5년) 선주위암이 중수했다. 지금의 대웅전은 맛배형의 당우로 1673년에 지었으며, 1857년(조선 철종 8년)에 범로 화상이 중수했고, 그 후 몇 차례의 불사를 거쳤다. 대웅전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로 약사불과 연등불이 협시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로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재사라는 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체의 재앙을 소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장도량이다. 대웅전 보수불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서는 현재는 모두 폐사 상태였으나 산내 암자와 더불어 상주대종이 3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로 많은 고승 대덕이 머물렀던 도량이라 전한다. 아쉬운 것은 소재사에 대한 기록들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음이 늘 아쉽지만 한 것은 아니다. 궁극히 주는 기도가 묵은 도량의 멋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안에 자리한 소재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개산 연대는 알 수 없다. 마당의 단풍나무 한 그루가 마른 잎을 매달고 설법하듯 서 있다.

지장보살의 대원

한때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하셨다. 그때 시방(十方)의 한량없는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마하살이 법회를 찾아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 미묘한 법의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를 비롯한 모든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 아래 사람들과 용, 귀신무리 등이 또한 법회에 모여들었다.

이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모든 불보살과 천, 용, 귀신들을 보았는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도리천궁법회를 찾은 이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자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불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겁의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고, 앞으로도 제도할 이들이니 지장보살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고개 숙인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쭙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세우고 실천했기에 이런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아,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삼라만상의 티끌과 낱알을 쉰 수만만큼의 강이 있다. 그 강에는 한량없는 모래가 있는데, 이 모든 모래 수만만큼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있는 낱알의 티끌을 집어라 한다. 그리고 이 겁이 모든 티끌 수만만큼 쌓였다고 해도, 지장보살이 십지과위를 증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 천배나 많다.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에 있을 때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보살아,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현세나 미래세에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 형상을 그리거나 봉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고 영원히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명부전에는 대웅전의 삼존불과 같은 시기인 1674년에 목조지장보살좌상을 모셨고, 함께 석조명부시왕을 비롯하여 판관, 녹사, 사자, 장군, 동자상을 모셨다. 늘 지옥 중생을 바라보고 있는 지장보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랜 겁 전에 이룬 장자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 부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된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물었다. “어떤 행을 닦았기에 그런 상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부처님은 장자의 아들에게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을 걸쳐 온갖 고통 받는 중생을 건져야 하느니라.”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장자의 아들은 서원했다. “나는 이제부터 고통 받는 육도중생의 성불을 위해 나의 성불을 미루리라.”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대원을 세운 장자의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백천만 나유타의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살로 남아 있는 것이다.

텅 빈 명부전

대웅전 바로 옆에 명부전이 있다. 그토록 오래된 지장보살의 시선이 변함없이 사바를 살피고 있다. “인간세상의 동쪽에는 철로 둘러싸인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나 달의 빛이 없습니다. 이 어둡고 깊은 곳에 극무간이라는 큰 지옥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악업의 과보로 가는 곳입니다. 화랑 지옥, 검수지옥 등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명부전엔 아무도 없다. 지장보살이 성불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 지옥은 아직도 중생들로 가득한 것인데, 지장보살이 계신 명부전은 텅 비어 있다. 아직도 지옥에 중생들이 가득한 것은 우리 중생들이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토록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지장보살을 모신 도량에 간다면 지장보살의 지옥이야기를 꼭 듣고 올 일이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지만 해도 삼악도를 면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 뵈고 올 일이다. ‘지옥’을 듣고 올 일이다. 지장보살의 성불은 중생이 ‘지옥’을 믿는 그날이어야 할 것 같다.

대구 비슬산 소재사=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주변보기

▲비슬산자연휴양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휴양림길 126 / 053-668-5326
소재사가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은 대구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1,084m의 비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35호인 비슬산 암괴류와 천연고찰인 유가사와 소재사, 용봉동석불입상, 대전사지삼층석탑 등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울창한 숲과 통나무집, 콘도, 청소년수련장, 아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와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이다.



▲허브힐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장면 가장로 1003 / 053/767-6300
허브힐즈는 허브, 자연, 숲, 동물, 문화&체험, 놀이가 함께 하는 복합 자연공원이다.

<사찰>

▲유가사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 053-614-5115
827년(신라 흥덕왕 2) 도성이 창건했다. 전성기에는 3천 명의 승려가 머물렀다고 하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 1682년(숙종 8) 도경(道鏡)이 대웅전을 보수했고, 1729년(영조 5) 취화와 파봉, 1760년 보월, 1776년 밀암, 1797년 낙암이 각각 중수 또는 중창한 바 있다. 1976년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켜 오늘에 이른다.

▲운흥사 / 대구시 달성군 가장면 오리신라 흥덕왕(재위:826~836) 때 운수가 창건했다. 창건 당시에는 동림사(棟林寺)라고 불렀다. 1592년(조선 선조 25) 임진왜란 때 유정(惟政)이 이곳에 머물며 3백 명의 승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싸웠다.

<숙박>

-비슬산자연휴양림 / 053-668-5326
-스파벨리 / 053-608-5000
가장면 냉천리에 위치한 스파벨리는 지역 최대규모의 종합휴양시설이다.

<식당>

-카페 연 / 053-616-0131 / 산채비빔밥
-청산고을식당 / 053-614-1808 / 춘담
-길목가든 / 053-615-7400 / 산채비빔밥, 토종닭
-은서민박 식당 / 053-615-6555 / 춘두부, 손칼국수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소재사 전경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